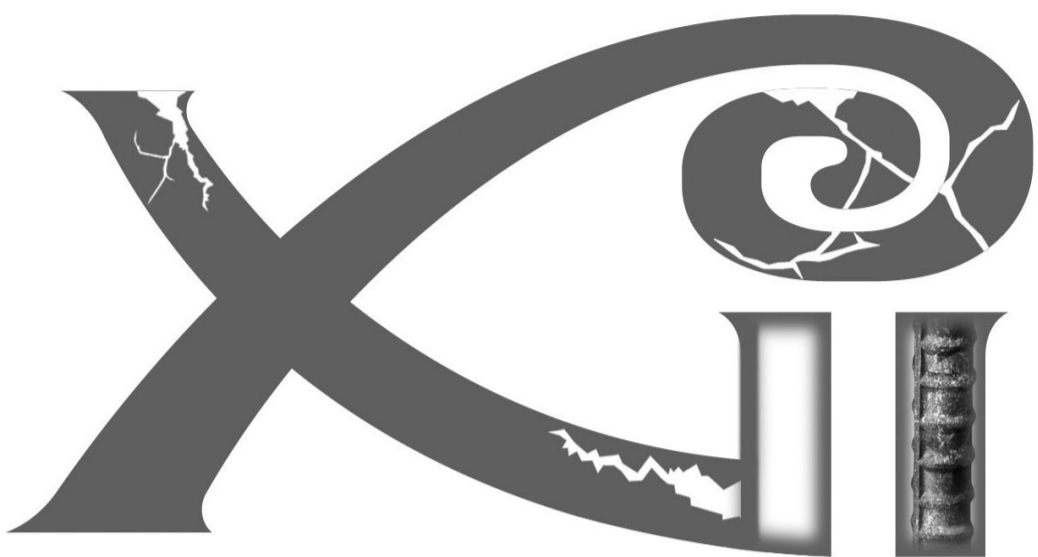


# ‘명품 자이’서 철골 없는 ‘순살 자이’로 추락한 GS건설

서울 강남 이어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철근 빼먹은 부실시공  
광주 무등산자이·상무센트럴자이 등 선호도·이미지에 큰 타격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가 철근을 빼먹은 부실시공으로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자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GS건설의 전국 사업장에서 각종 하자 및 민원이 논란이 되면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무센트럴자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6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및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초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단계에서 지하주차장이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빼뜨렸지만, 설계·시공상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세워지는 기둥 전체(32개)에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철근이 필요했다.

그러나 설계상 철근은 17개 기둥에만 적용됐다. 특히 지하주차장 기둥 32개 전부에 철근 보강이 있어야 하는데, 최소 19개(60%) 기둥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순살자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순살치킨처럼 골조를 빼뜨린 자이를 풍자한 것이다.

GS건설은 지난달 서울 강남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서 입주 3개월 만에 지하주차장이 물난리가 나는 누수 사고가 논란이 되는 등 전국 사업장에서 각종 하자 이슈와 민원이 이어졌다. 부실시공은 안전,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GS건설의 '자이'는 걸려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논란에 부실시공 사태까지 겹쳐 GS건설의 브랜드 '자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광주·전남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을 놓고 지역 부동산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우선 광주지역에서 브랜드 선호도가 높았던 자이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실추하면서 최근 분양에 나선 뒤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무센트럴자이'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평당 3000만원'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광주역대 최고 분양가 '상무센트럴자이'가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평균 1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이후 정당계약 등 현재 계약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순살자이' 사태가 터진 것이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난달 10월 입주를 시작한 광주시 북구 무등산자이&어울림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곧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무등산자이&어울림 한 입주자는 "1군 건설사로 브랜드 평판 순위 1, 2위를 다뤘던 GS건설의 자이가 매년 부실시공, 하자 논란에 휩싸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번 사태로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운 게 사실이다"고 하소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집 안 '방방방방' '맵 뷰'로 손쉽게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적용한 스마트 아파트에 '맵 뷰'(Map View) 기반의 홈 IoT 솔루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삼성전자 모델이 맵 뷰 기반 스마트싱스 홈 IoT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속도 높인다

### 피해자 결정 '월 1회→2회'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기 위한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앞으로는 매월 두 차례 열린다.

매월 한 차례 피해자 결정을 하던 것을 두 차례로 늘린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지원위원회 운영 방안을 바꿔 이번 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위원회는 3주에 걸쳐 1·2·3 분과위원회를 열어 긴급 경·공매 유예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4주 차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했다.

앞으로는 분과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사전 심의한 뒤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인정 결정을 한다.

이날 열린 1분과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마친 피해 인정 신청 160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한 뒤 148건을 가결했다. 7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부결됐고, 5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최종 피해자 인정 결정은 이날 14일 열리는 3차 전체회의에서 나온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공매 유예 신청 건은 638건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은 288건이다. /연합뉴스

## 5G폰으로 LTE 요금제 사용 가능해진다

### 단말기 지원금 30%로 상향 검토

현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중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과 함께 알뜰폰 업계 경쟁력 강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유도 등을 골자로 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지출 추이가 2020년 12만원에서 지난해 12만8000원을 거쳐 올해 1분기 13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통신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5G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사용자 부담을 낮

추도록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도 LTE·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연 2차례 등 주기적으로 이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정부도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규정한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리고, 폐지 요구가 나오는 단통법 개선 방안도 하반기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추가지원금 한도가 높아지면 현재 시행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25%가 상향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 전국 안정세에도 멈출 줄 모르는 광주·전남 집값 하락

광주 0.06%·전남 0.09% ↓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바닥 다지기에 들어갔지만, 광주·전남의 집값은 오히려 하락 폭이 확대됐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2023년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3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로 보합을 나타냈다.

지난해 5월 둘째 주(-0.01%)부터 이어진 하락을 멈추고 지난달 마지막 주에 보합 전환한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보합을 지속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3% 올랐다. 상승세는 지속됐지만 전주(0.04%)보다는 상승 폭이 다소 줄었다.

수도권은 0.04% 올라 전주의 상승 폭을 유지했으며 세종시도 전주와 마찬가지로 0.21% 올랐다. 서울과 수도권은 하락세를 멈췄지만, 광주·전남

은 여전히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다.

이달 첫째 주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4%)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0.06%로 나타났다. 이로써 올해 누적 매매가격 변동률은 -5.29%를 기록 중이다.

전남지역 역시 이달 첫 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0.08%)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0.09%로 집계, 올해 누적 매매가 변동률은 -4.68%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